



NEWS LETTER

2020년 6월 1일 Vol. 372

한약(생약)제제 특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국내 유일 지정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생약) 제제에 대한 특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지정을 통해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란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에 보고하고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대병원·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한약사회 등 27개 거점 종합병원 및 단체가 지정돼 있다. 이로써 동국대학교일산 병원·일산한방병원은 의약과 한의약 안전을 모두 관리하는 국내 유일 의료기관이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기본적인 부작용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분석·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 하는 등 한약(생약)제제에 특화된 부작용 관리 체계를 갖추 예정이다.

출처: 한의신문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연구팀, ‘코로나19 환자 선별의 적절한 기준 근거 제시’ 연구자료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연구팀은 최근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의 초기 발현 지역(우한)보다 2차 전파 지역 환자에서 증상이 경미하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김보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선별은 초기부터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역학적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에 질환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점차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감염 질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저명학술지인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2020년 5월호에 정식 게재되면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환우 위해 자비나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에서는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지난 5월 27일 병동에 입원한 환우 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자비나눔 행사에는 이해원 병원장과 임성우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능지 스님, 채석래 연우회장, 진영숙 간호부장 등이 참석해 병실을 돌며 환자들에게 봉축 선물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지도법사 능지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 분들을 위해 선물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작은 나눔을 통해 잠시나마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사용 가능해요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지역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 원금에 대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3개월 정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부된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과 병원 내원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므로 잊지 않고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기프트 카드형)

아동돌봄쿠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